

### ■ 동향(이스라엘-팔레스타인 전격 교전)

#### •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발생

-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던 하마스는 수십년 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잔혹행위에 대한 대응을 주장하며 전면 침투 작전을 개시. 이에 이스라엘도 미사일 공격 등 대응 강화 속에 교전 양상 확산하며 민간인 피해 늘어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세계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, 지상군 투입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임

#### • 주요국 및 중동 국가 대응

- 미국 등 서방 진영은 하마스의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면서도 교전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분쟁 종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항모 전단을 급파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전면전 시 국제사회의 전쟁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
- 그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했지만, 금번 사태에 대해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편에 설 것임을 표명한 가운데 대부분의 이슬람권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분위기이나 대체로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

### ■ 중동궤 교전에 따른 세계 금융경제 영향 점검

#### •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는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준의 긴축 기조 자극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- 최근 사우디, 러시아의 감산 영향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이어진 가운데 이스라엘-하마스 무력충돌이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자극함에 따라 10/9 기준 국제유가(WTI)는 4% 이상 급등.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직접적인 산유국이 아니라는 점 등이 반영되면서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세는 진정된 양상
-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두 국가에 국한될 경우 글로벌 원유시장 수급 여건에 미칠 영향력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. 그러나 향후 사태 장기화되며 이란 등 중동 산유국의 개입 발생 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되며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 존재

- 교전 발생 직후 달러, 금 등 안전자산 강세 및 주식 등 위험자산 약세 분위기 나타났으나, 시장은 과거 분쟁들이 단기간 내 마무리된 사례와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따른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 기대감 등에 더 주목하면서 위험회피 심리 진정된 양상

## ■ 국내외 통화시장에 대한 영향 점검

- 중동궤 교전이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가 이란이라는 점이 명백해질 경우 미국의 강력한 원유 제재 가능성이 상존. 이 경우 실제 국제유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과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 등 긴축 스탠스 가능성 재부각에 따라 달러/원 환율은 교전 양상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영향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반영하며 1,350원대 상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전망
- 특히, 중동産 원유 소비가 많은 아시아 국가 특성상 중동궤 교전 장기화 시 전반적인 달러 강세로 인한 고환율과,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, 이를 반영한 고금리 장기화 등의 삼중고에 대부분 국가의 경제 회복력이 더뎠을 것으로 보임
- 안전자산 선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쟁의 확산 가능성으로 이번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개입해 있다는 정황에서 레바논 지역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등이 동참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지상군 투입할 수 있어 보이는 점이 국제 통화금융시장에 심각한 위험회피 강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임
- 하지만 미 정보 당국의 초기 정보 종합을 볼 때, 금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이란 지도부도 놀랄 정도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자체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측면에서 서방과 이슬람권의 추가 개입없이 교전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다소 높고, 이에 단기적 국지전화 양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 할 경우, 통화시장에 변동성은 극대화 되었음에도 달러/원 환율 상방 압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